

# ‘자산 72兆’ 조용병號 신한라이프 출범... ‘생보 빅4’ 합류

〈신한금융그룹 회장〉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통합 자산으로 업계 4위, 순이익은 2위 양사 다양한 판매채널 시너지 기대 “일류 신한라이프 만들어 나갈 것”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통합한 신한라이프가 1일 공식 출범했다. 신한라이프는 출범과 동시에 생명보험 ‘빅4’ 반열에 합류해 차별화된 금융솔루션을 제공해나갈 전망이다.

신한라이프는 이날 서울 중구 신한라이프 본사에서 ‘신한라이프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성대규 사장을 비롯한 그룹사 최고경영자(CEO)와 신입사원 등이 참석했다.

신한라이프의 새로운 브랜드와 비전도 공개됐다. 신한라이프는 ‘라이프에 놀라움을 더하다’라는 브랜드 슬로건과 함께 신한라이프의 TV 광고를 선보였다. 광고는 브랜드컬러인 ‘컨템포러리 퍼플’과 상층을 추구하는 그래픽 모티프 ‘패스파인더’, 버추얼 인플루언서 ‘로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디지털 감성과 젊고 세련된 이미지를 추구하는 신한라이프의 브랜드 철학을 담고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왼쪽 일곱번째)과 성대규 신한라이프 사장(왼쪽 여덟 번째)이 ‘신한라이프 출범식’에서 신입사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신한라이프가 통합을 계기로 고객 중심으로 양사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차별화된 금융솔루션을 제공해 주길 바란다”며 “고객을 위한 원 라이프(One life), 세상에 하나뿐인 뉴 라이프(New Life), 모두에게 인정받는 일류 신한라이프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의 출범에 보험업계의 촉각이 곤두서는 데는 출범과 함께 생보 업계 4위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신한라이프의 2020년 말 양사 실적 단순 합산 기준 총자산은 약 71조5000억원으로 업계 4위에 달한다. 당기순이익은 3961억원으로 업계 2위, 수입보험

료는 약 7조9000억원으로 업계 4위 수준이다. 지급여력비율(RBC)도 314.1%에 이른다.

특히 양사가 합병을 통해 다양한 판매 채널을 보유하게 된 점도 눈길을 모은다.

기존 오렌지라이프의 설계사(FC)채널의 경우 2040세대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다. 여기에 4060세대를 겨냥한 신한생명 FC채널이 합해지며 전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FC채널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그 밖에도 ▲통신판매(TM) 채널 ▲전화와 대면 영업을 함께 하는 하이브리드 채널 ▲모바일 중심의 디지털 보험채널까지 고객과의 접

점을 넓힐 수 있게 됐다.

신한라이프는 출범과 더불어 ‘신한라이프 놀라운 중신보험’도 새롭게 선보였다. 성대규 신한라이프 사장, 이영종 신한라이프 전략기획그룹장이 출범을 기념해 해당 상품에 가입했다.

신한라이프는 향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먼저 신한라이프는 헬스케어 산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신한생명이 운영하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하우핏(HowFIT)’ 지원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하우핏은 신한생명과 스타트업인(주)

아이픽셀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홈트레이닝 서비스다. 별도의 웨어러블 장비 없이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AI가 사용자의 움직임을 분석해 운동 횟수와 정확도를 인식하고, 바른 자세로 운동할 수 있도록 코칭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31일 KT와 하우핏의 공동사업모델 추진을 위한 업무제약도 체결했다. 900만 KT 올레(olleh) TV 사용자를 기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행보도 이어간다. 앞서 신한라이프는 베트남 해외 법인을 통한 현지 당국의 설립 인가를 획득했다. 이를 통해 내년을 목표로 본격적인 영업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성대규 신한라이프 사장은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밑그림부터 지금의 모습까지 만들어진 모든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고객에게는 세상에 없던 가치를 제공하고 직원에게는 자부심과 열린 기회를 제공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오락가락 코인’ 가상화폐 거래대금 증가

거래대금 보름 만에 3조 가량 늘어 급락에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 반전 비트코인 반등, 알트코인 시세 급등 무더기 상회 앞뒤... 투자 주의 요구

국내 가상화폐(가상자산)거래소의 대규모 상장폐지 행렬이 주춤하면서 거래대금이 전월 중순보다 3조원 가량 증가하는 등 시장 분위기가 다시 뜨거워졌다.

1일 가상화폐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의 지난 24시간 거래대금은 8조 382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중순 거래대금이 5조원 아래로 하락했지만 보름만에 거래대금이 3조원 가량 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활력을 되찾은 것.

가상화폐 시장은 최근 시세 급락과 대규모 상장폐지 등의 악재로 인해 거래대금이 크게 하락했다. 지난 3월만 하더라도 4개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코스피 일 평균 거래대금인 15조원을 기록

했고, 이후 5월 초에는 업비트 한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40조원을 돌파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5월 중순부터 7000만원선을 유지하던 비트코인이 4000만원대로 급락하면서 거래대금도 크게 감소했다. 여기에 지난달 거래소들이 무더기로 상장폐지를 단행하는 등 악재가 이어지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돼 지난달 중순에는 5조원 아래로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보름만에 거래대금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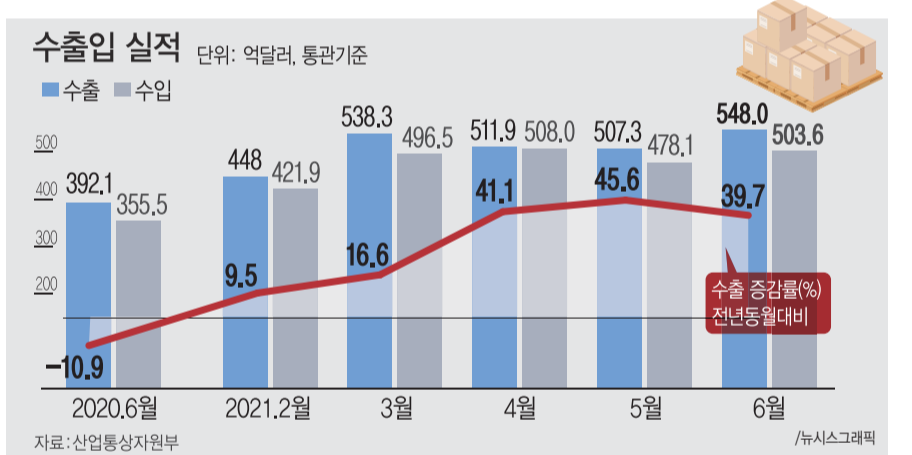
업계 관계자는 “최근 비트코인 반등과 더불어 알트코인 시세가 급등하면서 거래대금이 소폭 늘었다”며 “지난달 급락과 함께 얼어붙었던 시장 분위기가 다소 회복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공포-탐욕 지수도 지난달보다 반등하면서 공포분위기가 해소됐다는 분석이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디지털 자산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2시 기준 34.58으로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수는 다섯

단계로 나뉘며 낮은 수록 시장 투자 심리가 얼어 붙었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 달 18일 업비트가 20여종의 거래지원을 공지한 이후로 지수는 한때 12.05까지 하락한 바 있다.

다만 거래대금 상당부분이 상장폐지를 앞둔 가상화폐에 몰리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업비트에 따르면 아인스타이늄(EMC2)은 오는 3일 12시에 거래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인스타이늄의 거래대금이 지난 29일 중에는 24시간 거래대금이 1조8000억원을 유지하기도 했으며, 이날 현재 5500억원을 유지하면서 거래소 내에서 거래대금이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상화폐 관계자는 “앞서 진행된 가상화폐 상장폐지 속에서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이 상장폐지 전에는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는 등 학습된 것”이라며 “이들 가상화폐 매수에 나설 경우 자칫 폭탄 돌리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양영석 기자 ysl@



### 6월 수출 40% 증가... 상반기 ‘최고 성적’

2분기 수출 44년 만에 40% 넘어 상반기 사상 첫 3000억 달러 돌파 15대 모든 품목서 수출 ‘플러스’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9.7% 성장하며 8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특히 2분기 수출은 44년 만에 40%를 넘었다. 최근 3개월간 수출 증가는 전년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48억 달러, 수입은 503억 6000만 달러다. 무역수지는 44억 4000만 달러로 1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감소하다 작년 9월 +7.1%로 반짝 상승했다. 이후 11월 +3.9%로 증가세로 전환한 뒤 올해 3월까지 10% 내외 성장, 최근 3개월간은 40% 내외의 고성장을 기록하는 등 8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4월(+41.2%), 5월(+45.6%)에 이어 3개월 연속 수출 호조에 힘입어 2분기 수출은 42.1% 증가하며 1977년 이후 44년 만에 40%를 넘어섰다. 지난 달 일평균 수출은 22억 8000만 달러로

36.8% 증가하며, 역시 8개월 연속 증가다.

수출액은 역대 6월 최고치를 경신하며 4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역대 모든 달과 비교해도 3번째로 높다. 연중 4번 이상 500억 달러를 상회했던 때는 연간 수출액 1위를 기록했던 2018년과 올해가 유일하다.

15대 모든 품목과 9대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한 건 2011년 1월 이후 10년 만이다.

품목별로 15개 전 품목 수출이 증가했고, 이 가운데 14개는 두 자리 이상 증가해 고른 성장세다. 15대 품목 중 7개 품목은 6월 역대 수출액 1~2위를 기록하는 등 기저효과를 배제한 월수출액 측면에서도 대부분 품목이 선전했다.

올해 상반기로 보면, 수출액은 3032억 4000만 달러(+26.1%)로 사상 첫 3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상반기 수출 증가율은 2010년 상반기(+34.3%)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다.

상반기 수입은 2851억 1000만 달러(+24.0%), 무역수지는 181억 3000만 달러로 상반기 누계 13년 연속 흑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두산산업차량, 독립법인으로 ‘새출발’

두산서 분할, 두산팍켓 자회사 편입을 창사 이래 최초 매출 1조원 전망

지게차와 창고 장비, 다운스트림 등 물류 전반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두산의 지게차 사업부인 산업차량BG가 독립법인 ‘두산산업차량’으로 분할됐다. 두산산업차량은 소형건설장비체인 두

산팍켓의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

두산산업차량은 1일 (주)두산으로부터 분할이 완료돼 이사회를 열고 산업차량BG장을 맡아온 김태일 부사장을 대표 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두산산업차량은 지난 3월 (주)두산으로부터 산업차량 사업부를 705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한 두산팍켓의 자회

사로 편입된다. 인수 절차는 오는 5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1968년 설립된 두산산업차량은 국내 최초로 지게차 생산을 시작한 회사로, 2015년부터 5년간 연평균 약 7%의 매출 성장을 기록해 왔다.

두산산업차량 관계자는 “올해 북미 등에서 판매량이 급증해 회사 설립 이래 최초로 1조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